

광주 출신 가수 BTS 제이홉 전 세계인에 광주 또 알리다

방탄소년단의(BTS)의 제이홉(사진)이 발표한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에 '광주'가 언급되면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전 세계 '아미(ARMY)'팬의 관심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미'는 BTS 공식 팬 클럽이다.



'치킨 누들 수프'는 지난달 27일 발표와 동시에 아이튠즈 69개국 1위를 차지하고, 유튜브 주간 글로벌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또 한국 솔로 가수로는 싸이, 씨엘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도 81위로 이름을 올렸다.

'치킨 누들 수프'는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음악 차트로 불리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한국 솔로가수로는 싸이에 이어 두번째로 100위권 내인 82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아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노래의 가사에 제이홉의 고향 '광주'가 삽입되면서 전 세계 아미들의 관심이 광주라는 도시에도 집중되고 있다.

제이홉이 부르는 1절 가사에는 "From 광주한 거시기의 Gang 금남 충장 street 거긴 나 할렘 뉴런 ... 춤에 뺨가 위키윙크 매일 침대에 밤새우며 성장한 case"라는 내용이 나온다. "침대에 밤새우며 성장한 case"라는 가사는 광주와의 연관성이 강하다.

제이홉이 초등학교 시절,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서 동구 금남로까지 1시간 남짓한 거리를 오가며 댄스 학원을 다녔고, 중학 시절에도 버스가 끊기는 새벽 2시가 넘어서 까지 연습하고 친한 형들 집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는 등 연습에만 몰두했다는 성공신화는 국내 아미들 사이에선 잘 알려진 얘기다.

제이홉이 자신의 고향 '광주'를 노래 가사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

5·18 널리 알려진 '마 시티' 이어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서 금남·충장로 언급 관심 집중 아이튠즈 69개국서 1위 차지 '아미(ARMY)'팬 마음 흔들어

pt.2'에 수록된 '마 시티' (Ma City)는 BTS 멤버 3명이 작사한 곡으로 각각 자란 도시를 주제로 삼고 있다.

제이홉은 이 노래에서도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도 무등산 정상에 매일매일 ... 내 광주 호시가지 전국 팔도는 기어 모두 다 놀러라 062-518"이라는 가사로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서 이례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했다.

올해에는 지난 7월 개최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앞선 광주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찾은 일부 해외 아미들이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직접 참배(광주일보 2019년 4월 28일자 6면)하기도 했는데, 이는 제이홉이 쓴 가사 덕분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화제를 모

았다. 광주를 담은 신곡 '치킨 누들 수프'의 흥행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뮤직 비디오의 춤 동작을 따라하는 댄스 챌린지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NBA 유명선수인 스테판 커리, 미국 휴스턴 시장, 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의 심사위원인 하위 맨델도 챌린지 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뿐 아니라 호주, 필리핀 등 세계 각국 방송이 댄스 챌린지 열풍을 보도하고 있다.

해외 아미들은 중심으로 '치킨 누들 수프' 가사에 등장하는 광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 아미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그의 고향 광주, 그가 춤을 추었던 거리와 그의 옛 댄스 팀 '뉴런'을 언급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사에서 광주를 언급한 것을 보니, 고향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는 가사에서 고향인 광주를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등의 글들을 연일 올리고 있다.

해외 아미들은 또 광주가 어떤 도시인지, 제이홉 노래에 대한 광주의 실제 반응이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 등을 남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 아미들의 답변 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가 영문으로 해시태그(#gwangju)되는 등 광주는 도시의 이름이 아미들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인 김경대 음악평론가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아이돌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출신과 걸어온 길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제이홉도 '광주, 충장로, 금남로, 뉴런(댄스팀)'과 같은 단어를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내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바이러스 검사 아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의심신고가 충남 아산에서 접수되면서 21일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지역 전통시장의 한 가금판매업소에서 시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증외상 발생 후 도착전 사망 3년간 광주 38명·전남 58명

최근 3년 간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 전 길거리에서 숨진 사망자가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 이송 중' 사망자는 광주 38명, 전남 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7년 15명, 2018년 12명, 올해 8월 기준 11명, 전남은 2017년 16명, 2018년 25명, 올해 8월 기준 17명이 길거리에서 사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793명이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광주 61.8분, 전남 112.9분으로 두 지역 모두 치료 가능성이 높은 '골드어워' 60분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 비리' 한전 전·현 임직원들 징역형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편법으로 공사대금을 감면받은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전북본부 임원 A(5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B(6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 C(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 고창군의 한 태양광발전소를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고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D(55)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여만원을 감

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D씨에게 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도 같은 수법으로 D씨로부터 총 발전소 공사대금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을 할인받았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 강령상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 받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까지 챙긴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광주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만들려다 비난 쇄도에 철회

○...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의정동우회'를 자치구인 '의정동우회'를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추진하려다 지역 사회의 비난이 쇄도하자 자진 철회해 망신살.

○...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강기석 구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발의한 '광주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된 뒤 입법 의결하려 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등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섹터 특혜성 조례"라는 비판성명 등이 잇따라 이날 오후 철회를 발표했다는 것.

○...강 의장은 "전·현직 의원들의 경륜을 활용하지는 좋은 의미였으나 비판 여론이 끊어질 철회를 결심했다"고 해명했으나,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시의회는 2017년 특혜 논란이 일자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동구·북구·광산구의회는 해당 조례 자체가 없다"면서 "유일하게 남구에만 의정동우회 관련 조례가 남아있긴 하지만, 예산지원 등이 없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조례"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4대 주요범죄 3년간 8만8293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4대 주요범죄가 최근 3년간 9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주요범죄는 광주 4만 1076건, 전남 4만 7217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살인 44건, 강도 107건, 절도 1만 5701건, 폭력 2만 5224건 등 이었으며, 전남은 살인 104건, 강도 76건, 절도 1만 6313건, 폭력 3만 724건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서별 4대 주요범죄 발생건수는 광주에서는 북부서(1만 1238건)가 가장 많았으며, 서부서(1만 581건), 광산서(91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목포서(9711건), 여수서(8574건), 순천서(7401건) 등의 순이었다.

소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과 강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화이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